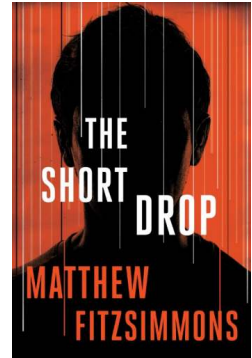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SHORT DROP
가제 : 폭락
저자 : Matthew Fitzsimmons
출판사: Thomas & Mercer
발행일: 2015년 12월 1일
분량 : 397 페이지
장르 : 미스터리, 스릴러



미국, 영국, 호주 3대륙 ‘아마존 킨들 스토어’ 스릴러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석권한 데뷔 소설

수잔 롬바드라는 이름의 열네 살짜리 소녀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자와 만나러 나간 뒤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책벌레로 소문난 수잔이 미국 상원의원 벤자민 롬바드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실종 사건을 향한 세간의 이목은 점점 뜨거워진다. 그러나 수잔이 이상한 야구모자를 눌러 쓰고 어느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된 것 외에는 행적을 추적할 만한 어떠한 단서도 나오지 않는다. 장거리 트럭 운전사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라 FBI의 수사가 벌어졌지만 명확한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아 풀려나고 만다. 미국 정계를 쥐락펴락하는 최고의 실세로 알려진 수잔의 대부는 1,00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포상금까지 내걸지만, 범인도 수잔도 감쪽같이 사라진 채 사건은 미궁에 빠진다. 한 나라의 유명한 정치인 자녀가 이토록 허무하게,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평범한 가정 아이들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냐는 불안감에 국민 전체의 여론이 들끓고 온 나라가 이 정체 모를 범인과 무력한 수사 기관에 분노를 표출한다. 세월은 속절없이 흐르고, 수잔이 실종된 지 10년 째 되는 해가 돌아온다. 그토록 긴 시간이 흐르도록 이 사건을 한 시도 잊지 못하고 살아온 한 청년에게, 누군가 사건을 재조사할 생각이니 동참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온다. 스물여덟 살이 된 이 청년의 이름은 김슨 본, 한 때 수잔의 아버지 밑에서 참모로 일하던 듀크 본의 아들이었다.

김슨은 아주 어린 때부터 수잔과 친 오누이처럼 자랐다. 말괄량이 수잔은 김슨을 줄줄 쫓아다니는 꼬마 조수이자 김슨이 한 번도 친형제가 아니라고 느낀 적이 없을 정도로 가까이 지내던 동생이었다. 그러나 김슨이 고등학생 시절, 엄청난 해킹 실력자가 되어 아버지가 모시는 벤자민 의원과 대립하면서 비극이 시작되고 말았다.

10년째 행방이 묘연한 정치인의 딸, 소녀를 찾으려는 사람들과 추적자를 없애려는 사악한 세력

김슨은 해킹 실력을 뽐내며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수잔의 아버지를 괴롭히고, 벤자민 의원은 김슨의 행각을 눈치채자마자 그를 감옥으로 보내는 대신 해군에 강제로 입대시킨다. 그러나 김슨이 찾아낸 시한폭탄 같은 문서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태는 점점 심각해진다. 벤자민 의원이 선거 자금을 빼돌려 케이맨 제도가 주소지로 되어 있는 의문의 개인 계좌에 차곡차곡 축적한 사실이 나와 있는 이 문건으로, 의원이 결국 경제사범으로 몰려 철창 신세를 질 위기에 처하자 김슨의 아버지가 목을 매 세상을 등지고 만 것이다. 그로부터 2년 뒤, 제 발로 집을 나선 수잔이 어딘가로 사라져버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딸을 잃어버리고 비통함에 잠긴 가족들과 함께 미국 전체가 함께 슬퍼하면서 벤자민 의원의 정치 인생은 자연스레 성공 가도로 이어진다. 딸이 돌아오지 않은 그 10년의 시간 동안 그는 부통령을 두 번이나 지내고 이제 최종 목표인 대권 주자로 나섰다. 그러나 김슨은 수잔이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 자신이 도와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김슨에게, 벤자민 의원의 보안 책임자였던 조지가 연락을 해 온 것이다. 컨설팅 회사를 운영한다는 조지는 수잔의 행방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갑자기 나타나 조용히 재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김슨은 조지가 이미 확보해둔 전직 CIA 요원, 전직 LA 경찰청 형사와 함께 재조사에 뛰어든다. 그리고 수잔이 실종되기 직전, 채팅방에서 만난 'WR8TH'라는 아이디의 인물이 10년이 지나서야 온라인에 올린 의문의 사진을 결정적인 단서로 보고 파헤치기 시작한다. 그러나 세상에서 잊혀진 미제 사건을 해결하고 수잔에 대한 마음의 빔을 덜기 위해 시작한 이 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촉수를 움직이던 사악한 집단과의 대결로 이어진다. 교활하기 짝이 없는 정치계의 파워게임, 수잔을 찾는 자들을 모조리 죽이려는 무장 세력,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고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는 자들이 김슨과 수사팀 앞을 가로막는다. 대체 수잔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김슨은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싸움을 시작한다.

<아마존 킨들 스토어 순위>

Amazon Best Sellers Rank: #28 Paid in Kindle Store (See Top 100 Paid in Kindle Store)

#1 in Books > Mystery, Thriller & Suspense > Thrillers & Suspense > Crime > **Kidnapp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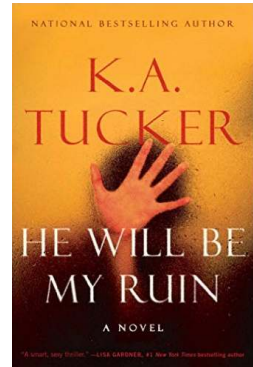
#1 in Kindle Store > Kindle eBooks > Mystery, Thriller & Suspense > Crime Fiction > **Kidnapping**

#2 in Kindle Store > Kindle eBooks > Mystery, Thriller & Suspense > Thrillers > **Espionage**

<저자 소개>

매튜 피츠시몬스(Matthew FitzSimmons)는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 태어나 런던에서 자랐다. 현재 워싱턴에 살면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영문학과 희곡을 가르치고 있다.

제목 : HE WILL BE MY RUIN
가제 : 나를 망가뜨릴 남자
저자 : K. A. Tucker
출판사: Atria Books
발행일: 2016년 2월 2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로맨틱 서스펜스



베스트셀러 『Ten Tiny Breaths』, 『Burying Water』 시리즈의 작가 K. A. Tucker 의 신작

인생 목표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여자, 베일에 휩싸인 그녀의 비밀스러운 삶
아프리카에 수년 째 머물다가 뉴욕으로 다급히 돌아온 매기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현실에 어안이 병병할 뿐이다. 친 자매처럼 친했던 친구 셀린이 혼자 살던 뉴욕의 아파트에서 자살했다는 비보에 부리나케 달려왔지만, 매기는 텅 빈 셀린의 방을 보고도 도저히 친구의 죽음을 받아 들일 수가 없었다. 누가 뭐래도 셀린은 절대로 자살할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게다가 셀린이 오래 전부터 갈망하던 꿈이 이루어지기 직전이라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매기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 자살은 분명 어딘가 이상했다.

스물여덟 동갑인 매기와 셀린은 네 살 때 처음 만났다. 에너지 업계에서 대부로 불리는 매기의 아버지, 그 어마어마한 사업 규모 탓에 각종 사고 활동을 하고 다니느라 정신이 없던 어머니, 둘 다 하나 밖에 없는 딸에게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 만사를 돈으로 해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부모님은 매기가 한창 엄마아빠의 따뜻한 사랑을 갈구할 때 멕시코 출신 유모 겸 가정부를 집에 들여 자신들의 빈자리를 대신하도록 했다. 유모는 딸을 데리고 매기의 저택에 들어와 살게 되었고, 그렇게 매기는 평생 가장 절친한 친구가 된 셀린을 만났다. 늘 꼭 붙어 다니면서 끈끈한 우정을 키워온 두 소녀는 매기의 부모님이 이혼을 결정하면서 서로 다른 도시에서 살게 되었다. 매기는 엄마를 따라 시카고로 가고, 셀린은 엄마와 함께 캘리포니아로 떠났지만 매기, 셀린 그리고 셀린의 엄마, 이 세 사람은 진짜 피를 나눈 가족처럼 늘 서로를 생각하고 생일이며 크리스마스를 챙기면서 살았다. 그러나 성장 배경이며 경제적인 수준이 판이하게 달라서일까, 매기와 셀린이 꿈꾸는 삶의 모습은 많이 달랐다. 매기는 자선사업가가 되어 아프리카, 아시아 곳곳을 누비면서 빈민들을 도와주는 일에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았다. 돈만 건네는 대신 가난한 사람들의 삶 깊숙이 직접 들어가서 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는 것이 매기의 목표였다. 셀린의 꿈은 훨씬 더 현실적이었다. 골동품 감정사가 되고 싶어 했던 셀린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유명한 예술학교인 홀링스워스 학교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정했다. 가족처럼 친한 친구지만 매기가 주는 돈을 한사코 거절한 셀린은 스스로 부지런히 일하고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학비를 마련했고, 맨해튼에 번듯한 원룸 아파트까지 구했다. 죽기 직전에는 홀링스워스 예술학교에서 합격 통보까지 받

아 높은 상태였다. 이제 아무 걱정 없이 공부만 하면 되는데, 허무하게 죽고 만 것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 속여야 했던 비밀과 사생활, 진실이 드러날수록 성큼 다가오는 살인자

매기가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경찰은 셀린의 죽음을 이미 자살이라고 결론 짓고 수사를 종료했다. 셀린이 보드카에 약을 섞어 마신 후 의식이 몽롱한 상태로 잠들었고, 그대로 깨어나지 못해 숨을 거둔 것으로 판명이 났으니 의심의 여지 없이 자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도저히 떨쳐지지 않는 의구심에 셀린이 남긴 유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던 매기는 뜻밖의 물건들을 발견한다. 세상에서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어쩌면 전혀 다른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비밀이 그 물건들에 담겨 있었다.

셀린의 아파트에서는 1만 달러에 가까운 거금이 현찰로 발견되고, 열세 살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쓴 셀린의 일기장은 죽기 전 3개월 분량만 사라지고 없었다. 꽃 배달과 함께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카드에는 'J'라는 서명이 써 있고, 셀린이 자물쇠로 걸어 잠근 작은 상자 안에서는 거의 벗겨벗은 나체로 찍힌 어떤 남자의 사진이 나왔다. 매기는 사진 속 주인공이 주지사의 아들이자 돈 많은 헤지펀드 매니저로 세간에 알려진 제이스 에버릿임을 알아챈다. 매기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셀린의 사생활, 비밀에 부쳐야만 했던 한 남자와의 관계, “이 남자가 날 망가뜨릴 것 같다.”고, 마치 비참한 최후를 예견한 듯 셀린이 남긴 메모... 친구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타살임을 확신한 매기는 경찰이 재수사를 하게 만들 결정적인 단서를 찾기로 결심하고, 사설탐정을 고용하여 셀린이 죽기 전 어떤 생활을 했는지 직접 파헤치기 시작한다. 그러나 철저히 베일에 덮여 있던 셀린의 삶이 한 꺼풀씩 벗겨지기는 동시에 매기 역시 살인자의 레이더망에 포착되고 만다. 이미 저지른 죄를 감추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도 마다하지 않을 범인은 매기에게 서서히 접근한다.

<저자 소개>

K.A. 터커(K.A. Tucker)는 여섯 살 때 초등학교 사서 선생님의 도움으로 크레파스로 쓴 첫 저서를 발표했다. 베스트셀러 『Ten Tiny Breaths』, 『Burying Water』 시리즈 등이 대표작이다.

제목 : JOIN
가제 : 조인
저자 : Steve Toutonghi
출판사: Soho Press
발행일: 2016년 4월 19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환타지



몸은 죽어도 의식은 죽지 않는 세상, 여러 명의 인생을 동시에 살아볼 있게 해주는 놀라운 기술

동시에 여러 가지 인생을 살 수 있고, 절대 떨어질 리 없는 완벽한 동반자가 곁에 있으며, 죽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어떨까? 지금으로부터 머나먼 미래에 바로 이런 삶이 현실이 된다. ‘조인’이라는 혁신적인 기술 덕분이다. 여러 명의 사람이 하나의 의식을 공유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몸은 여러 개지만 의식은 하나라 신체마다 다른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조인’이 약속하는 새로운 형태의 삶이다. 의식을 공유하는 각 신체는 ‘드라이브’라 불리고, 최대 스무 개의 드라이브가 하나의 의식을 공유하는 ‘조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 다섯 개의 드라이브를 이리 저리 바꿔가며 다섯 가지 인생을 살아가던 찬스는 역시나 다섯 개의 드라이브로 이루어진 친구 립과 함께 이 획한한 기술 덕분에 평온한 나날을 보낸다. 그러나 미래도, 죽음도, 아무 것도 걱정할 것이 없던 두 사람의 삶은 어느 날, 있을 수 없는 존재와 마주치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제 손으로 자신의 드라이브를 하나씩 무참히 살해하는 존재, 도무지 알 수 없는 목적을 이루려고 혈안이 된 로프라는 조인이 나타난 것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살인자 로프는 조인 기술을 작동시키는 네트워크 전체를 제멋대로 조작하며 완전히 다른 모습의 미래를 혼자 꿈꾼다. 찬스와 립은 완벽한 줄만 알았던 조인 기술에 의혹을 품기 시작한다.

찬스는 다섯 명의 드라이브 가운데 가장 최근에 통합된 드라이브가 악성 종양 판정을 받자 이상한 기분에 휩싸인다. 이 드라이브의 몸은 암 때문에 결국 죽을 수 밖에 없지만, 의식은 하나이므로 원래라면 찬스 자신은 죽음을 인식하지 못해야 한다. 그러나 찬스는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조인 기술이 약속한 것과 달리 죽음을 아예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립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언젠가부터 립의 드라이브에서 심각한 틱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정작 립은 그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프로그램의 치명적인 오류인가? 근본적인 원인을 알 수 없어 답답해하던 두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로프만이 알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그 방법을 알아내려면, 로프의 정체와 음흉한 속셈부터 알아야 한다.

구원을 약속한 기술, 그 이면에 감춰진 치명적인 대가... 정체성의 의미에 의문을 던지는 이야기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찬스나 립처럼 조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결코 저

럼하지 않은 이용료를 낼 수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었다. 일종의 ‘혜택’이 되어버린 이 기술에 자신의 뇌를 맡기지 못한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들처럼, 몸 하나에 의식이 하나인 상태로 ‘솔로’라 불리며 따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살아야 했다. 솔로는 솔로들끼리 살고, 조인이 된 사람들은 괜찮은 솔로를 찾아 자신의 드라이브가 되라고 설득하기도 하고, 다른 조인과 통합하여 더 큰 조인을 이루며 삶을 이어갔다. 인류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해줄 것 같던 이 파격적인 시스템의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한 찬스와 립은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떠돌던 중 극도로 황폐해진 북미 대륙의 환경을 목격한다. 처참하게 파괴된 환경, 그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인간 의식을 접한 두 사람은 개개인의 정체성이 점점 모호해져 버린 이 사회에서 로프처럼 도덕적 해이라는 무서운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서로를 깊이 신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는다. 그래야 로프의 계락을 알아내고, 그의 사악한 계획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

매혹적이고 적용에 한계가 없어 보였던 놀라운 기술, 그 기술이 만든 유토피아 뒤에 감추어진 치밀한 계획과 위험성을 한 겹씩 벗겨내는 과정에는 인간 정체성의 본질에 관한 심오한 철학적인 의문이 담겨 있다. 스릴러의 요소가 가미된 만화경 같은 소설이다.

<저자 소개>

스티브 토투통히(Steve Toutonghi)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인류학을 공부하고 실리콘 밸리에서 기술 전문가로 일하다가 고향인 시애틀로 돌아와 글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 : THE BETTE DAVIS CLUB

가제 : 베티 데이비스 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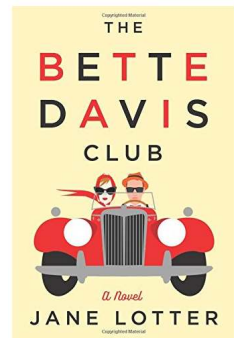
저자 : Jane Lotter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15년 12월 8일

분량 : 337 페이지

장르 : 유머



귀중한 가보와 함께 도망친 어린 신부, 빨간 스포츠카에 올라 그녀를 찾아 나선 이모와 신랑

빛나는 태양, 투명하게 반짝이는 파란 바다, 맑은 하늘 아래 유난히 선명한 푸르르고 넓은 잔디, 이 모든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오는 말리부 해변가에서 마티니를 음미하는 중년 여성이 있다. 그녀의 이름은 마고. 열아홉 어린 나이에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나선 조카 조지아의 결혼식을 보러 며칠 전에 뉴욕에서 이곳까지 왔다. 조지아의 어머니이자 마고의 언니인 샬롯과 마고는 이복 자매이기도 하고 자주 만나거나 친하게 지내는 사이도 아니라서, 이 먼 곳까지 오는 것이 썩 내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마고가 제일 친한 친구인 도띠까지 한사코 끌어 말리는데도 이 결혼식에 올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언니와는 서먹하지만 조지아는 어릴 때부터 마고가 진심으로 예뻐한 조카이고, 언니네 가족이 살고 있는 말리부의 거대한 저택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마고도 살았던 집이기 때문이다. 뉴욕에서 벌인 사업이 내리막길에 접어들면서 한동안 우울한 시간을 보낸 마고는 결혼식을 핑계로 어린 시절을 보낸 집에 다시 가서 행복했던 추억도 되새기고, 경제적인 문제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었다. 게다가 할리우드에서 잘 나가는 영화 프로듀서로 이름난 샬롯 언니가 기차표 살 돈까지 다 대주는 마당에 공짜로 즐길 수 있는 여행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그리하여 한동안 빠져 나올 구실이 없던 외로움과 우울함을 털어버리길 바라며 마침내 옛집에 도착했지만 역시나 상황은 유쾌하지 않았다. 은근히 무시하는 언니의 태도도 불쾌하고, 빌려온 드레스를 걸친 자신과 달리 600명에 육박하는 하객들은 하나 같이 돈 냄새를 온 몸에서 폴폴 풍겨냈다. 손님들 대부분이 영화계에 몸 담고 있는 유명인사들이었고, 억소리 나는 고급 드레스며 택시도로 온 몸을 휘감고는 가식적인 미소를 얼굴에 걸친 채 마고 주변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예상했던 위화감이지만 왠지 더 위축되는 자신을 느끼며, 마고는 공짜 술이나 실컷 마시자는 생각으로 애써 위안해본다. 한 잔, 두 잔, 마티니를 훌쩍이다 보니 50세가 되도록 실수 연발에 꼬이기만 했던 자신의 삶이 떠올라 더욱 씁쓸하기만 했다. 내일이면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고가 연거푸 술잔을 비우던 그 때,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드는 사태가 발생했다. 신부가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것이다!

도망간 신부가 가지고 떠난 보물의 실체는? 여행길에서 다시 돌아보는 지난 세월의 기억과 미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샬롯 언니가 다가오던 순간부터 마고에게는 온갖 황당한 상황들이 줄지어 벌어진다. 언니는 조지아가 결혼식 직전에 겁에 질려 어딘가로 몰래 도망을 간데다 자신이 가

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가보’를 챙겨서 달아났다면 울상이 되어 있었다. 하객들 귀에 이 엄청난 뉴스가 들어가면 언니가 그 동안 쌓아온 명성에 먹칠이 되는 건 물론이고, 할리우드 곳곳에 소문이 일파만파 나돌 것이 뻔했다. 샬롯은 마고에게 무려 5,000달러라는 거금을 선뜻 내밀면서, 제발 조지아와 사라진 물건을 좀 찾아와달라고 부탁한다. 사업은 파산 직전에 형편이 늘 쪼들리던 마고는 이 큰 돈을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어 마지못해 수락한다. 그러나 치명적인 문제가 두 가지 있었다. 신부 들러리의 제보로 조지아가 팜스프링스로 갔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극심한 비행 공포증이 있는 마고는 절대로 비행기를 탈 수가 없다는 점, 그렇다면 차로 쫓아가야 하는데 운전 면허증도 없다는 점이다. 샬롯은 두 자매의 아버지가 1960년대에 할리우드에서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로 이름을 날리던 시절에 몰고 다니던 새빨간 MG 스포츠카를 내놓고, 운전은 신부에게 버림 받은 예비신랑, 톨리가 맡기로 했다. 술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50대 이모와 까칠한 신랑의 도망간 신부 찾기는 이렇게 어영부영 시작됐다.

그 동안 서로 몇 마디 나눠보지도 않은 마고와 톨리 두 사람은 누가 봐도 허니문카로 오해받는 빨간 스포츠카에 나란히 앉아 팜스프링스로 향한다. 그러나 금방 끝날 줄만 알았던 추격은 66번 국도를 타고 시카고로, 뉴욕으로 이어진다. 그 길에서 배꼽 잡는 사건들과 잊지 못할 인연들이 불쑥불쑥 나타나 귀찮기만하던 추격전은 어느새 신나는 모험으로 바뀐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새엄마 가족들 손에 이끌려 영국의 한 기숙학교로 쫓겨나듯 떠나야 했던 마고는 이 뜻밖의 여행 속에서 일도, 사랑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늘 자책만 하던 삶을 새롭게 돌아보고, 조금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시작한다.

<저자 소개>

제인 로터(Jane Lotter)는 「시애틀 선」에 ‘제인이 말해줄게요(Jane Explains)’라는 제목의 유머 칼럼을 게재하는 등 유머 작가로 활동했다. 위 작품을 데뷔 소설로 완성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NON-FICTION

제목 : EMPIRE OF THINGS

가제 : 상품 왕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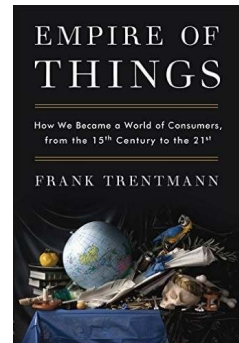
저자 : Frank Trentmann

출판사: Harper

발행일: 2016년 3월 28일

분량 : 880 페이지

장르 : 인문



영국 왕립 역사학회가 수여하는 ‘윌필드 상(Whitfield Prize)’을 수상한 작가의 신작

사회의 주된 구성원이 ‘소비자’인 시대, 15세기부터 21세기까지 전 세계 소비의 역사

소비는 현대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활동이 되었다. 한 나라의 경제가 국민의 지출 규모에 좌우되고, 개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물건으로 스스로를 정의하는 생활 형태는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발생시키고 있다. 대체 언제부터, 어떤 경로를 거쳐 우리는 이토록 많은 물건들을 소유하며 함께 살게 되었을까? 그리고 소비활동은 인류 역사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런던 대학교의 역사 교수인 저자는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와 중국 명나라부터 글로벌 경제 체계가 자리 잡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물질이 중심이 된 세상이 형성된 그 놀라운 과정을 이 책에서 추적한다. 일반적으로 ‘소비’라는 개념은 미국을 중심으로 다루어지지만, 저자는 소비 행위가 실제로는 훨씬 더 오래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더불어 저자는 한 때는 귀한 외국 물품으로만 여겨지던 커피나 담배, 인도의 면직물, 중국의 도자기 등이 세계 곳곳에 유입된 과정을 살펴보면서 무역과 제국의 영향력을 짚어보고, 가정의 실내 장식품과 고급스러운 의복, 편리한 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개개인과 공공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본다. 또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등장한 백화점, 신용카드, 광고의 영향과 윤리적 소비를 향한 관심, 아시아 소비자가 재등장한 배경도 함께 고찰한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현재까지 무역과 시장에 관한 모든 면을 900 페이지에 가까운 두툼한 분량으로 다루고 있는 이 책은 인류의 소비 역사와 무언가를 획득해야만 했던 필요가 낳은 결과를 종합한 연구서라 할 수 있다. 흑사병이 휩쓸고 간 뒤에 새로이 등장한 노동 시장은 임금 상승을 유도하고 보다 저렴한 상품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 동시에 중산층 계급이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고,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자 스페인에서 생산된 은이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했다. 유럽인들은 물론 극동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원활하게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화폐를 만들었다. 새로운 대륙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은 새 상품을 싼 값에 내놓는 창구 역할을 하며 기존 소비층을 두텁게 만들었다. 계급에 따른 차별도 소비주의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상류층은 자신들보다 낮은 계급

의 사람들과 옷차림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치 방지법을 만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귀족주의는 ‘소비자’가 한 사회를 구성하는 시초가 되었고, 인구가 도시로 몰리는 시대가 열리자 물건을 더 많이 가지려는 사람들의 욕구는 한층 더 증대되었다. 저자는 이와 같이 시대 흐름에 따라 소비주의가 처음 형성된 시점부터 점차 강화된 배경과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한다. 또한 여러 경제학자들이 밝힌 견해들을 정리하여 물건의 가치가 처음에는 만든 사람에 의해 부여되다가 나중에는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결정되는 형태로 바뀐 이유를 알아본다. 이와 함께 현대인의 소유 욕구가 낳은 폐기물, 부채, 스트레스,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견해를 제시한다.

<목차>

1부

1. 세 가지 소비 문화
2. 소비에 대한 깨우침
3. 물건의 지배권
4. 도시
5. 소비자 혁명의 귀환
6. 이데올로기 시대
7. 풍족함, 그 속을 들여다보면
8. 아시아 소비자

2부

9. 지금 구매하고 돈은 나중에 내세요
 10. 그리 빠르지 않다
 11. 요람에서 무덤까지
- (이하 생략)

<저자 소개>

프랭크 트렌트만(Frank Trentmann)은 런던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로 500만 파운드 규모의 ‘소비 문화 연구 프로그램’을 총괄했다. 함부르트 대학교와 런던 경제정치대학교,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독일 빌레펠트 대학교 등 유럽 여러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저서 『Free Trade Nation』로 영국 왕립 역사학회가 수여하는 ‘윌필드 상(Whitfield Prize)’을 수상했다.

제목 : IN PRAISE OF SIMPLE PHYSICS

가제 : 물리학 예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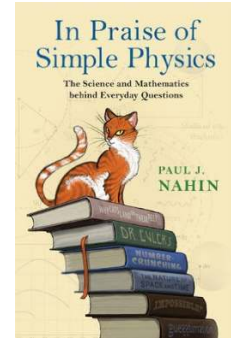
저자 : Paul J. Nahin

출판사: Princeton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6년 5월 31일

분량 : 296 페이지

장르 : 과학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현상 뒤에 숨겨진 수학과 물리학의 원리, 그 흥미진진한 세계

물리학은 아주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진 학문이다. 실제로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 방식만으로는 핵심에 접근하기 힘들다. 실험과 관찰은 물리학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논리적으로 일관된 사고와 함께 상상력, 수학, 물리적인 직관력까지 갖추어야 한다. 한마디로 물리학을 들여다보는 일은, 모퉁이를 돌 때마다 여러 갈래의 길이 나타나는 미로 속을 걸어 다니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물리학이 매력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현상을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밤은 왜 어두운지, 밀물과 썰물이 왜 생기는지, 심지어 어떻게 해야 날아오는 야구공을 잘 잡을 수 있는지도 물리학이 설명해준다. 수학과 과학에 관한 대중적인 글을 써온 저자는 이 책에서 이처럼 평소에 흔히 접하는 현상들을 예로 삼아 그 원리가 되고 바탕이 된 과학과 수학을 설명한다. 저자의 안내를 따라 흥미진진한 사례들과 그 속에 숨겨진 물리학의 원칙을 살펴보다 보면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과학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레 깨달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에서 최대한 많은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 차고에서 중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런던에서 파리까지 가장 신속하게 이동하는 방법은? 원자폭탄이 터질 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할까? 축구공을 발로 뺨 차서 저 멀리까지 날아가게 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저자는 이처럼 사소한 궁금증에서 출발한 쉽고 단순한 문제들을 설명하고 점점 더 어려운 문제로 나아가면서 유머와 재미를 가미하여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다양한 정보들을 풀어 놓는다.

여러 연구소며 강의, 학원에서 ‘물리는 어렵기만 하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깨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왔다. 물리를 쉽게 배우는 방법들을 제시한 온라인 자료며 책들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런 자료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물리학의 기본 법칙부터 설명하고 그 법칙이 적용된 사례를 제시하여 이해를 돕기도 하고, 역사적인 발전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물리학이 어떻게 ‘발명’되었는지 추적하는 방식도 자주 사용된다. 저자는 수학과 물리를 철저히 분리하여 물리학의 개념을 중심에 세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연 법칙에 대한 수학적인 분석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단, 분석 자체에 몰두하지 않느라 재미를 잃게 만드는 대신 독자가 기본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주력한다. 따라서 이 책에 나온 개념을 따라가려면 미분과 적

분에 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요구되지만, 간단한 계산으로도 저자가 의도한 결과를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 미적분 지식이 없다면 이 같은 계산이 필요한 부분을 그냥 건너뛰어도 충분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물리학이 전 세계에 끼친 영향에 관심이 있는 사람, 과학이나 공학을 공부하면서 물리학을 좀 더 깊이 알고 싶다고 느낀 사람들에게 특히 유익한 책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주변 세상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중에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을 수 있는 흥미로운 정보가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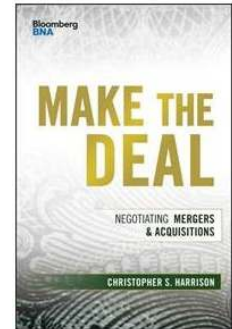
<목차>

1. 수학 좀 하세요?
 2. 신호등의 딜레마
 3. 움직이는 공기와 에너지
 4. 드래그 레이싱과 우주정거장에 숨은 (몇 가지) 물리학
 5. 회전목마의 물리학과 조수
 6. 흐르는 물과 에너지
 7. 벡터, 그리고 만사가 다 꼬이는 날
 8. 깨달음을 주는 문제들
 9. 스톱워치로 땅에 생긴 깊고 어두운 구멍의 깊이를 측정하는 법
 10. 서문에 나온 문제 해답
- (이하 생략)

<저자 소개>

폴 J. 나인(Paul J. Nahin)은 뉴햄프셔 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가르치고 있다. 「Digital Dice」, 「Chases and Escapes」, 「Dr. Euler's Fabulous Formula」 등 대중들이 읽을 만한 베스트셀러 수학 저서를 다수 발표했다.

제목 : MAKE THE DEAL
가제 : 기업 협상의 모든 것
저자 : Christopher Harrison
출판사: Wiley
발행일: 2016년 2월 15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경영



기업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전략과 협상 절차, 실제 사례 분석을 정리한 종합 안내서

기업을 인수하고 합병하는 절차는 끊임없이 바뀌고 발전하고 있다. 빛의 속도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그 변화의 속도는 생각보다 엄청나다. 기업 협상에 성공하려면 시장의 흐름을 꾸준히 예견하는 능력만큼 중요한 요소도 없을 것이다. 게다가 특정 거래를 성사시킨 탁월한 전략도 다른 거래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큰 흐름에 앞서 나아갈 수 있는 참신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까? 저자는 이 책에서 기업 인수합병(M&A) 협상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 인수합병을 위한 협상을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차근차근 설명하는 동시에 금전적 이익을 발생시키려면 협상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 알려준다.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자는 다른 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협약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그 전체적인 틀을 먼저 설명한 후 다양한 거래 형태와 구조를 세부적인 사항들을 논의한다. 특히 실제 상황에서 주식 처분, 합병, 자산 매각, 복합 구조와 같은 구체적인 요소들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상세한 정보를 제시하고, 기존에 이루어진 협상 사례를 분석한다. 협상에 나선 양측 모두가 위험성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수익은 최대한으로 늘리려고 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그 미묘한 중재 방법도 함께 제시된다. 그 외에도 협상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곤란한 상황들, 전쟁만큼 치열한 협상 뒤에서 오가는 계약 내용과 조건들, 기업 협상에 관한 통계 자료 등이 풍성하게 제공된다.

과거에 큰 성과를 얻었던 전략들을 아무렇게나 던지는 대신, 저자는 그 전략들이 왜 효과가 있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다른 기업이 채택하여 활용하더라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바꾸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똑같은 거래는 있을 수가 없고, 거래마다 법률적인 특성이나 조건도 각양각색이다. 따라서 거래의 구체적인 구조부터 마련해야 거래를 성사시킬 수 없다. 실제로 협약에 사용되는 법률 용어에 따라 사업 제안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 거래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법적인 요소들에 내포된 기능과 잠재적인 영향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복잡하고 미로처럼 느껴질 수 있는 M&A 과정 전체를 차근차근 들여

다보면서 이 같은 법률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영, 재무에 관한 사항들을 한데 모아 협상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을 집어준다. 특히 법적인 조건이 경제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 전략이 법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구체화되어야 성공과 직결되는지, 또 구체적인 거래 조건마다 향후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지 설명한다.

독자의 이해를 돕는 그래픽 자료와 협상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친 실제 사례 연구가 포함되어 있어 경영인, 변호사, 혹은 이들의 역할에 흥미를 느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책으로, 어려운 협상 용어를 몽땅 나열만 하는 대신 각각의 용어들이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큰 줄기를 보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한다. 또 한 가지를 협상하면서 다른 요소들을 염두에 두는 방법, 성공적인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그 과정을 계획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목차>

- 1장. 거래가 성사되려면
- 2장. 준비 단계 - 전체 과정과 기밀 협약
- 3장. 준비 단계 - 핵심 조항과 합의
- 4장. 인수 협약의 구조
- 5장. 매입 가격
- 6장. 진술 및 보장
- 7장. 약정
- 8장. 계약의 체결
- 9장. 권리의 소멸
- 10장. 물질적인 피해
- (이하 생략)

<저자 소개>

크리스토퍼 S. 해리슨(Christopher S. Harrison)은 미국 뉴욕의 법률회사 숄츠 로스 앤 자벨(Schulte Roth & Zabel LLP)에서 기업 인수합병과 공공기관, 민간 업체의 사업상 문제 해결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2009년부터 뉴욕 대학교에서 사업거래의 재정적, 법적 측면에 관한 사항들을 가르치고 있다.

제목: BE YOUR OWN HERBALIST

가제: 허브 전문가 되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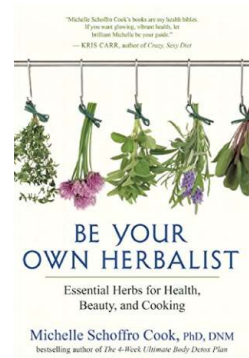
저자: Michelle Schoffro

출판사: New World Library

발행일: 2016년 4월 12일

분량: 256 페이지

장르: 취미/실용



허브로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키는 노하우, 재배하고 수확하는 방법부터 일상생활 활용법까지

텔레비전이나 잡지를 보아도 허브가 몸에 좋다고 열심히 설득하는 광고는 그렇게 많지 않는데, 허브로 의약품에 못지 않은 도움을 받았거나 심지어 약보다 더 큰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들은 심심찮게 들려온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의약품으로도 분명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허브를 이용한 치료법 또한 의약품처럼 생명을 강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알고 보면 허브를 이용하여 훨씬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 전신을 치료하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증상들을 의약품에 의존하는 경우도 참 많다. 25년 전, 저자는 ‘살기 위해’ 복용했던 의약품에서 부작용이 발생해 몸 상태가 처음 보다 현격히 악화된 끔찍한 경험을 계기로 허브 공부를 시작했다. 이후 의약품을 완전히 끊고 영양을 챙기고 허브를 활용하며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이어올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저자는 그동안 체득한 건강 관리의 노하우와 영양학적인 지식을 이 책에서 정리했다.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온갖 증상들 때문에 고통 받던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도우면서 얻은 귀중한 정보들과 함께, 저자는 집에서 허브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알짜배기 지식을 제공한다.

대형 제약회사들은 인간의 건강보다 수익을 많이 내는 방법에 관심이 많은 구조로 바뀌었다. 기존보다 방대하고 비용은 훨씬 더 비싼 치료법을 앞다투어 내놓으려는 그들만의 경쟁 속에서 환자 개개인에게 필요한 요소들은 잊혀졌다. 또한 약효가 있는 성분만 쏙 뽑아내어 실험실에서 그와 똑같은 성분을 합성한 결과물은 몸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때로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허브는 그와 같은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고, 대부분 최소 수십 가지, 최대 수백 가지가 넘는 치유 성분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며 인체에 이로운 영향을 준다. 이 강력한 식물을 누구나 기르고 활용하여 치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한 이 책에는 일반적으로 두루 이용되고 효과가 좋은 31가지 허브가 소개된다. 거주하는 지역의 기후와 상관없이 각 허브를 잘 키우는 방법이 함께 제공되지만, 꼭 직접 키우지 않더라도 시장이나 슈퍼마켓에서 구입하여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각 장은 역사적으로 허브를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에 관한 정보와 함께 수확 요령, 사소한 증상부터 중증 질환까지 다양한 건강 문제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밝힌 최신 연구 결과와 허브를 맛있게 특성과 약효를 잘 살려서 섭취할 수 있는 레시피로 구성된다. 로즈마리가 뇌 기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모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 ‘냄새 고약한

장미'라 일컬어지는 이유, 민트의 일종인 레몬밤이 두통을 없애고 만성 피로와 불면증 해소에 효과적이라는 점, 카렌둘라가 치은염 완화에 도움이 되고 상처 치료도 돕는다는 점, 고수풀이 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점 등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흥미로운 허브의 효과와 더불어 이 다양한 허브를 차나 식사, 연고, 스크럽 등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목차>

1부. 기본 지식

1장. 허브 전문가를 위한 가이드

2장. 허브 활용하기: 우려내기부터 달이기까지

2부. 자연이 선사한 허브의 놀라운 기능

3장. 바질

4장. 카렌둘라

5장. 카모마일

6장. 차이브(골파)

7장. 고수풀

8장. 민들레

9장. 에키네이서

10장. 목향

(이하 생략)

<저자 소개>

미셸 스코프로(Michelle Schoffro)는 공인 약초학자이자 천연의학 의사로 25년 동안 천연 건강법과 전인적 영양 분야에서 일했다. 『60 Seconds to Slim』, 『The Ultimate pH Solution』, 『The 4-Week Ultimate Body Detox Plan』 등 열여덟 권의 건강 분야 저서를 발표했다.

제목 : THE 8 LAWS OF CHANGE

가제 : 변화를 만드는 여덟 가지 법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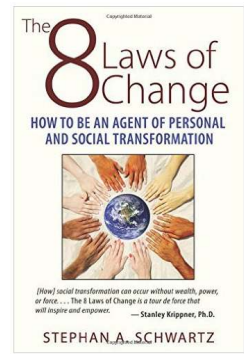
저자 : Stephen Schwartz

출판사: Park Street Press

발행일: 2015년 10월 5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Stephen은 'In The 8 Laws of Change'을 통해 자신의 통찰력을 독자와 함께 공유합니다. - 디팩 초프라, 'The Seven Spritual Laws of Success'의 작가

공통의 목적을 위해 개개인이 내리는 작은 선택 거대한 사회변화를 만드는 여덟 가지 핵심 원칙

극심한 기후변화, 지구촌 어느 한 쪽은 홍수에 시달리고 다른 한 쪽은 가뭄에 시달리는 현상, 항생제가 무용지물이 되고 슈퍼버그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사태, 거대한 기업 국가가 등장하여 기존의 국가가 지닌 영향력까지 다 앗아가는 현실,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이 암울한 경향들에는 공통적인 원인이 있다. 사회가 가장 중시하는 가치, 사회적인 우선순위가 경제적인 이득에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행복한 삶이 차지해야 할 자리를 이윤이 차지하면서, 개개인은 물론 가족, 지역사회, 국가, 전 지구의 행복은 등한시되고 말았다. 변화에는 위기가 따라오게 마련인데 이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발생한 사태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이득보다 행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렇다면 행복을 추구하면서 수익도 얻는 방법은 없을까? 저자는 인류가 자초한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최대한 원만하게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변화'의 길을 이 책에서 제시한다. 1960년대 시민권 운동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70년대 해군 개혁,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의 민간외교까지 큼직한 사회 변화의 중심에서 활약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저자는 사회가 성공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늘 고심하고 연구했다. 16년간 이어진 탐구 과정에서 직접 확인한 일정한 패턴과 과학적인 원리를 토대로, 저자는 고생스러운 단계는 최소화하면서 진정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방안을 제시한다.

사회 변화는 크게 세 가지 경로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고 두 번째는 물리적인 힘이다. 대부분이 강압적이고 폭력까지 동반하는 이 두 번째 변화는 당연히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가장 성공적이고 지속력도 강한 세 번째 경로는 바로 공통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개개인이 진실되게 내리는 선택이다. 저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영향이 미미해서 자칫 간과되기 쉬운 이 세 번째 경로야말로 큰 변화로 이어지는 튼튼한 뿌리라고 이야기한다.

개인, 사회, 지구촌 전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검증된 전략들이 정리된 이 책에서, 저자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변화의 법칙을 여덟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큰 재산도 없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르지도 못했고 힘이 세지도 않은 그저 평범한 사람도 이 법칙을 알고

실천하면 얼마든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저자는 실제로 이 법칙에 담긴 전략과 원칙을 실천하여 역사를 바꿔놓은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그 실효성을 검증한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벤자민 프랭클린, 테레사 수녀, 간디 등 역사적인 인물들이 만들어낸 변화의 과정과 함께 의학, 신경과학, 생물학, 양자 물리학 등 과학계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입증된 변화의 법칙과 영향력이 상세하게 제시된다. 개개인에게 자신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감각을 키워주고 스스로의 진실성을 강화하여 자신보다 더 나은 무언가와 연결고리를 찾는 것, 여덟 개의 법칙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이 작은 변화가 씨앗이 되어 사회와 세계 전체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풍성한 사례와 과학적인 연구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목차>

머리말: 최우선 목표

1. 두 갈래 길
2. 일상적인 선택들
3. 존재감
4.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할까?
5. '비즈 포 라이프'
6. 익명의 힘
7. 비폭력의 힘
8. 장기적인 안목
9. 그린피스
10. 권한 문제

(이하 생략)

<저자 소개>

스티븐 슈워츠(Stephen Schwartz)는 세이브룩 대학교에서 상담을 담당하면서 'Schwartzreport.net'의 편집장을 맡고 있다. 「뉴욕타임스」, 「허핑턴 포스트」 등 다양한 매체에 글을 기고해 왔으며 네 권의 저서를 발표했다.

제목 : THE MOCKINGBIRD NEXT DOOR

가제 : 옆집 앵무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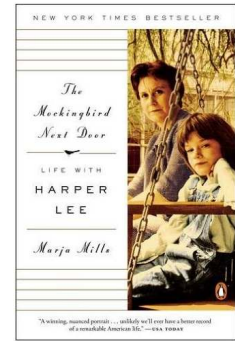
저자 : Marja Mills

출판사: Penguin Books

발행일: 2015년 5월 5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회고록



『앵무새 죽이기』만 남기고 공공 숨어버린 작가, 하퍼 리와 이웃이자 친구가 된 기자의 이야기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베스트셀러 도서 목록에 오르는 소설 『앵무새 죽이기』는 1960년 발표된 직후부터 큰 인기와 관심을 모았다. 작가인 하퍼 리는 강간범으로 몰린 흑인을 변호하며 불의에 맞서 싸우는 변호사 아버지를 보면서 어린 소녀가 느끼는 감정들을 쫓아가면서 인종 차별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유머를 섞어 따뜻하게 그려냈다는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작가는 이 소설을 처음이자 마지막 작품으로 남긴 채 세상에서 모습을 감춰버렸다. 소설의 인기와 명성만큼 작가에 대한 관심도 끊이지 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작가와 만나고 싶어 했지만 하퍼 리는 굳게 걸어 잠근 문을 열지 않았다. 2001년, 「시카고 트리뷴」 기자로 일하던 저자 역시 특집 기사 취재를 위해 하퍼 리의 고향을 방문하면서도, 이 완강하기로 소문난 작가와 자신이 직접 만나게 되리라곤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뜻밖에도 하퍼 리가 언니와 함께 살던 고향집의 대문이 활짝 열렸고, 그날의 첫 만남은 세 사람의 진한 우정으로 이어졌다. 이 책은 아주 특별한 소설가와 친구가 된 저자가 바로 옆집에 1년 반 동안 살면서 보고, 듣고, 느낀 일들을 떠올린 회고록이자 세 사람의 추억, 우정이 생생하게 담긴 기록이다.

『앵무새 죽이기』가 출간된 후 하퍼 리는 연일 쏟아지는 세상의 관심에 질겁해버렸다. 끊이지 않는 인터뷰와 사인회로 손목 인대에 염증이 생길 정도였다. 고향인 앨라배마의 작은 마을 몬로빌은 구경꾼들이 우르르 몰려드는 관광지로 변모했다. 이 모든 사태로부터 벗어나기로 결심한 하퍼 리는 취재하고 싶다고 들이대는 기자나 자서전을 쓰겠다고 덤비는 작가들과의 접촉을 일체 거부하고 조용히 살아왔다. 한편, 1년 동안 시카고 시민 전체가 함께 읽을 책을 선정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시카고 트리뷴」은 2001년, 하퍼 리의 유일한 소설을 해당 프로그램의 도서로 선정했다. 이 일로 카메라 기자와 함께 몬로빌로 향한 저자는, 기껏해야 하퍼 리를 잘 아는 주민들과 인터뷰를 할 줄 알았다가 뜻밖에도 하퍼 리의 언니 앨리스와 만나고, 책이 빼곡히 꽂힌 자매의 집 서재에 들어가는 영광까지 얻는다. 지인들 사이에서 ‘넬’로 불리는 하퍼 리보다 열다섯 살이나 많은 앨리스는 당시 89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이 만남 덕분에 마침내 저자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언론인들의 애를 태우던 『앵무새 죽이기』 작가와 마주한다. 급기야 2004년에는 자매의 옆집으로 거처를 옮겨 매일 일상을 함께 하면서 리 가족이 살아온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두 자매로부터 직접 전해 듣는다. 그렇게 18개월 동안 저자는 자매의 가

장 친한 이웃이자 친구로 지내면서 벨, 앨리스와 함께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낚시도 가고, 오리에게 먹이도 주고, 시장을 보러 가고, 맥도날드나 버거킹에도 가며 앨라배마 이곳 저곳을 여행하고, 자매의 절친한 지인들과 함께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 따뜻한 시간 속에서 저자는 두 사람의 놀라운 지성과 날카로운 위트, 어디에서도 느끼지 못한 이야기꾼으로서의 재능을 발견한다. 저자가 담담한 문장들로 채워 넣은 이 회고록에는 이 특별한 자매가 전한 어린 시절의 이야기, 남부에 살던 때의 기억들, 벨의 유일무이한 작품이 평생 자매와 가족들의 삶에 끼친 영향, 그 이후 다시는 소설을 쓰지 않게 된 사연들이 모두 담겨 있다. 공유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꺼내어 놓도록 강요하지 않고,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은 철저히 지킨 저자의 마음과 믿음직한 태도가 숨기만 하려던 두 자매의 마음을 연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을 글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목차>

- 별도 소제목 없이 34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마르자 밀스(Marja Mills)는 과거 「시카고 트리뷴」 기자로 일했다. 2001년에는 오헤어 공항에 관한 기사로 풀리처 상을 수상했다.